애리조나대, 전세계 불교 망라 불교연구센터 신설

미국 애리조나대학이 불교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애리조나대학은 "세계 불교의 종교적 · 지적 · 사회문화적 전통 탐구를 위한 연구 허브 '불교연구센터(Centre for Buddhist Studies)를 새롭게 설립한다"며 "미국 사회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불교 및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돌입할 것"이라고 9월 12일 학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인문대 내 설립될 불교연구센터는 세계 불교와 관련한 학술대회 개최, 학자 지원, 미래 인재 양성 및 지원, 강연 개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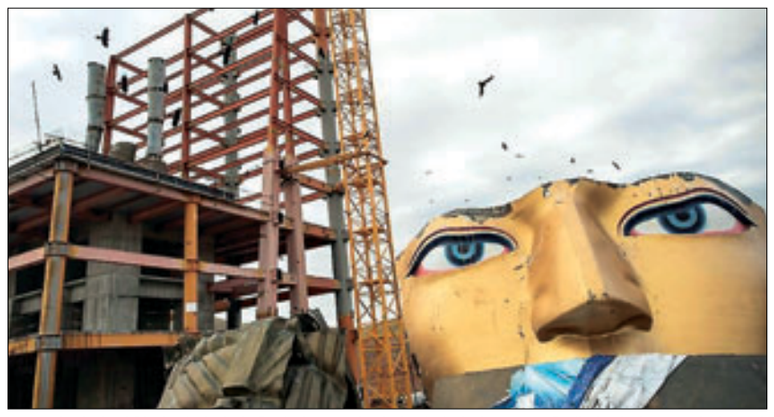
특히 개원 후 향저후 프로젝트, 불교지리정보시스템 프로젝트, 대장경 연구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불교지리정보시스템 프로젝트는 전 세계 불교 사원 및 관련 명소들의 디지털 매핑(mapping) 작업을 실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장 우(Jiang Wu) 동아시아학 연구교수(불교연구센터 소장)는 "본 연구센터는 세계의 거의 모든 불교를 포괄할 것이다. 치밀한 연구계획을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연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연구센터는 2018년 3월 말경 '동아시아의 선 불교'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몽골 경제 침체에 불교도 '휘청'

국가 부채로 불교 사업도 무기한 연기 상태



몽골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울란바토르에 건립 예정이던 불교교육센터 마저도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사진출처=데일리메일**

몽골은 오랜 불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채 등 경제적 문제 때문에 불상 하나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올해 당선된 칼트마 바툴가(54) 몽골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선언하고 나서 몽골 불교에도 청신호가 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메일'은 9월 14일 몽골의 불교 사업들이 경제적 이유로 중단된 실정을 언급, 앞으로 전망을 소개했다. 현재 몽골불교엔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몽골 내 대표적 불교 부흥 사업인 울란바토르 불교교육센터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건설 예정이던 부지엔 만들다만 불상의 잔재들이 굴러다닌다. 혁명이나 사상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몽골 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80% 수준을 넘어서면서 불교 부흥 사업은 뒷전이 된 탓이다.

2013년부터 몽골 불교 성지 '하트 힐'의 순찰을 맡은 치그밋 런더브(Tsegmid Lunduv · 68)는 개원이 무기한 연기된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처음 순찰을 돌 당시 이곳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에 불교 교육센터가 개원될 예정이었기

불교교육센터 개원 등 중단
불상 하나 건립도 어려워
올해 칼트마 대통령 취임 후
경제 살아나며 불교도 '기대'

때문이다. 달라이라마의 동참으로 기대감은 더욱 고조됐고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다"면서 "하지만 이곳을 지키는 사람은 나와 내 가족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이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올해 당선된 바툴가 몽골 대통령이 국가 부채 탕감 및 경제 회복을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몽골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런더브는 "새 대통령이 경제를 회복시키면 자연스레 불교 사업도 다시 활기를 띨 것이다. 불교만 다시 중흥하면 몽골 내 모든 사회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몽골 불교는 원제국의 태조 칭기즈칸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한때 인구 중 80%가 라마불교도였으며 한 집안에 남자아이가 많을 때는 1~2명을 출가시키는 풍습도 있었다. 또한 공산혁명 전에는 700여 개 사찰이 있었다. 그러나 공산혁명 초기 불교사원이 파괴되고 승려가 투옥 · 살해됐다. 이에 1990년에는 몽골 내 사원이 단 3곳뿐이었다.

이후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몽골 불교는 몇 십년간 불교의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힘쓴 결과, 현재 몽골에는 170여 개의 사찰이 있다. **박진형 기자**

이별 위한 마음 챙김 '굿바이 명상'

뉴욕타임스, 이별에 힘든 이들 위한 명상법 소개

"안녕" 인사하며 위빠사나 몸과 마음에 긍정적 영향



이별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뉴욕타임스'가 9월 13일 굿바이 명상을 소개해 화제다. **사진출처=뉴욕타임스**

이별의 슬픔을 덜기 위한 명상, 이른바 '굿바이 명상'이 소개돼 화제다.

삶 속에는 많은 종류의 '굿바이'가 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가벼운 이별부터, 죽음에 이르는 영원한 이별까지. 그래서인지 '굿바이'는 영화나 노래에서 슬픈 마지막 작별인사로 많이 쓰인다.

이렇듯 이별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뉴욕타임스'가 9월 13일 굿바이 명상을 소개했다.

굿바이 명상은 일종의 위빠사나다. 위빠사나는 하나의 현상에 마음을 집중해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역시 자신을 관(觀)하는 것이 굿바이 명상의 주된 방법이다. 다음은 '뉴욕 타임스'가 소개한 굿바이 명상의 순서.

– 우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감정에 집중해 알아차린다.

– 흉부의 긴장감 등 몸 상태를 알아차린다. 이미 이별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觀)한다.

– 다시 깊이 숨을 내쉰다. 현재 순간과 상대에게 집중한다.

–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그 · 그녀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다.

– 상대에게 "굿바이"라며 작별 인사한다. 상대의 대답을 집중해 진심으로 듣는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통해 작별인사가 더 이상 슬픈 이별의 말이 아니라 그 자체로의 순간에 감사하는 말이 될 것"이라며 "삶의 무상함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며,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 몸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전했다.

이런 주장처럼 현재에 집중하고 의미있는 "굿바이"를 만들어낸다면 차후 더 큰 이별의 상황에서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박진형 기자**

불교학자, 포커게임 상금 전액 기부 '화제'

"열악한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 교육환경 개선 희망"



티베트 불교 경전을 연구 · 번역하는 스캇 웰렌바흐는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포커대회인 '포커스타'에서 1700명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17위를 차지해 7만2000달러를 상금으로 받았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티베트 불교 경전을 연구 · 번역하는 스캇 웰렌바흐는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포커대회인 '포커스타'에서 1700명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17위를 차지해 7만2000달러를 상금으로 받았다. 그는 상금 전액을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혀 화제다.

웰렌바흐는 캐나다 방송 CBC라디오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상금은 티베트의 척박한 환경에서 수행하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며 "불교 전통에 따르면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이 보다 수월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웰렌바흐는 수년간 포커게임에서 딴 상금을 기부해왔다. 타인의 돈을 쉽게 따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복권이나 카지노 등으로 큰 돈을 획득한 사람들은 대부분 도박 · 알코올 등에 중독되거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욕망을 잘 조절해 중독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적당히 즐기면서 게임에 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부를 통해 이 중독을 조절합니다."

웰렌바흐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게임에 우승하는 비법도 공개했다.

그는 지난 여름 바르셀로나 온라인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면서 오프라인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스페인행 여행권과 5500유로를 땄다.

스페인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그는 한 번에 12시간 정도 포커게임에 참여했다. 첫 번째 게임에서 그는 경쟁자들 중 가장 많은 칩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경쟁자들 중 4분의1은 전문적으로 포커를 치는 사람들이었다.

이때 웰렌바흐는 우승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는 "이때 한 게임이라도 지면 칩 모두를 잃어 게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경쟁자들을 파악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웰렌바흐는 불교공부가 포커 게임에서 우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는 "마음챙김과 알아차림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자신과 더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다. 즉,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은 감정과 생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며, 게임 테이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다 명료하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승에만 매달리지 않고 타인에게 친절과 자비의 마음을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나는 포커 테이블에서 참가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흥미롭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일본서 '명상하는 고양이' 화제

일본의 한 고양이가 선종 사찰 인근에만 가면 걸음이 느려지거나, 부동(不動) 자세를 취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고양이 주인의 트위터를 통해 알려진 이 고양이는 '바위정원'이라고 불리는 이 사찰에만 오면 법당 앞마당으로 발길을 향하고, 제 집인 양 자연스럽게 눕거나 웅크린 자세를 취한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고양이가 명상하는 것 아니냐" "전생에 스님이 아니었겠느냐"는 등 재밌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트위터 @jinjahan0817**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알립니다〉

윌리엄 리 부탄문화원장의 **'한국-부탄 수교 30주년 기념 특별연재'**는 필자의 사정으로 **조기 종료**되었음을 알립니다.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금 액 : 450만원
■ 제조사 : 안스아트